

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점검의 기회 - 건강진단부 직무교육 -

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산업보건센터 / 신 계 숙

보건대행부에서 건강진단부로 발령받으 벌써 2년이나 지났지만, 경험하지 않았던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가득했던 그 당시의 기분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기만 하다.

3월 3일, 협회 건강진단부의 간호·행정·전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본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. 이번 교육은 건강진단부의 새로운 인력이 많아서 분야별로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,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. 미리 센타 별로 분야를 나누어 자료를 준비하였고 교육 당일 발표하는 시간이 배정되었다.

우리 서울센타에서 발표하게 된 부분은 건강진단의 업무흐름이었다. 건강진단 절차와 검진업무 매뉴얼을 발표해야 했다. 2년 동안 많은 식구들과 건강진단을 수행해 오면서 갖게 된 노하우도 함께 소개하기로 했다. 발표 준비를 위해서 동료들이 열심히 도와준 결과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나 발표에 대한 부담감으로 막막한 심정이었다. 선배님들 앞에서 미숙한 후배가 발표를 하려니 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자신을 위로했다. 그러나 심장 뛰는 소리는 쿵다쿵다 온 몸을 전율하였고 다리는 심하게 후들거렸으나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여 발표에 정신을 쏟았다.

본격적인 건강진단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교육은 참으로 특별했다. 발표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업무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, 각 센타만의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었다. 무엇보다도 의미 있었던 것은 건강진단 담당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. 자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센타간 정보를 교환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, 각자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.

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조금 더 보완하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. 서울센타에서 준비한 자료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, 처음 입사하여 겪었던 시행착오를 검진업무를 처음 접하는 후배들은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.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제 어디에 배치되어도 담당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, 최고가 되는 날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다.

오세은, 안미현, 김소영, 그리고 막내 김보라, 한근연 간호사. 마지막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협조해 준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. 🍀